

해양지명의 표준화와 표준편람 제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tandardization and Manual Production of Marine eographical Names in Korea

임영태¹⁾ · 최윤수²⁾ · 장학봉³⁾ · 한길수⁴⁾

Lim, Young · Tae Choi, Yun Soo · Chang, Hak Bong · Han, Kil Soo

- 1) 국립해양조사원 해도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과정(E-mail : ytlim@nori.go.kr)
- 2) 서울시립대학교 지적정보학과 교수 (E-mail : choiys@uos.ac.kr)
- 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환경안전연구실 연구위원 경영학박사(E-mail : hbchang@kmi.re.kr)
- 4) 국립해양조사원 해도과장 (E-mail : kshan@nori.go.kr)

요지(Abstract)

해양지명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해양·해협·만·포 및 수로 등의 이름과 초·퇴·해저협곡 해구 등 해저지형의 이름이다. 지명의 표준화란 지명을 통일(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하는 과정으로서 특정의 지리적 장소, 특색, 지역에 대하여 각각 공식적인 이름을 부여하여 표기하는 것이다. 해양지명 표준화는 각 개별국가들이 해도 및 해양간행물에서 통일된 해양지명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항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며 해양측량기술이 발달하면서 해저지형에 대한 측량과 지명부여가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국내적으로 통일되고 국제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정확한 해양지명 부여를 위한 해양지명표준편람의 제작 목적과 방향에 관하여 연구하고 앞으로 해양지명위원회의 활동방향을 제시하였다.

1. 서 론

지명(地名)이란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언어유산으로 지명에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설, 문화, 풍속 등이 들어 있으며 그 지방의 생활상이나 자연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명이라는 말은 <한서(중국 전한의 역사책)> 지리지 머리말에 나오는 말이라고 한다. 원래 지명이란 산, 강, 바다 등 지구상의 자연물을 지칭하는 이름이다. 따라서 지명은 오로지 하나로 표현되거나 기록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어떤 장소는 동일한 언어나 서로 다른 언어상 한 개 이상의 지명을 지니기도 한다. 동일한 지명이라도 여러 방식으로 표기되거나 발음될 수도 있으며, 때로는 서로 다른 장소들이 동일한 이름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혼란은 의사소통의 장애를 초래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때로는 예기치 못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접해 있고 3,170여 개의 크고 작은 섬과 서, 여 외에도 수많은 암초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일부의 섬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표준화된 해양지명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해양지명표준화란 해양지명의 표기, 발음, 지명부여원칙에 있어서 혼란을 제거하고 통일을 기하자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해양지명표준화는 국내적으로 국민의 교육적, 학술적,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며, 국제적으로는 우리나라 해역에 위치하는 해양지명을 널리 알림으로써 해양주권의 확립과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지리적인 명칭에 대한 각계각층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세한 지도와 해도, 그리고 해양관련 간행물을 작성함에 있어서 단일화된 해양지명의 부여는 필수

적이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양지명표준화와 편람제정에 관하여 편람의 제정 목적과 제정방향 앞으로 표준해양지명의 구체적인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해양지명의 시대별 변화

우리나라 육상 및 해양 지명(地名)은 대부분이 1481년 완성된 동국여지승람을 통하여 처음으로 정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531년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은 1481년 완성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내용이 대부분이고, 그 후 1530년까지 보충한 것은 신증(新增)이라는 표시를 해서 구분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이 1530년 완성되고 1531년 목판 인쇄되었으나 우리나라 육상 및 해양 지명은 대부분이 1481년 완성된 부분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주변의 바다와 해안의 명칭이 서구화된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서양인들이 우리 해역에 직접 와서 해도를 제작하면서부터이다. 프랑스의 탐험항해가 La Perouse 일행은 1787년 우리나라 근해를 과학적으로 탐사하고 1797년 그들의 항해기록과 항해도첩(Atlas du Voyage de la Perouse)이 Paris에서 발행되었다. 항해도첩 속에 있는 3장의 해도에 나타난 바다 명칭이 포함되어 있다.

1886년(明治 19年) 12월 일본 해군수로부에서 발행한 환영수로지 제2권의 제2판 즉 개정판에 한반도 속의 소규모 해역명칭이 한문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들이 1880년대 초기에 이미 정착된 명칭임을 말해주고 있다. 수로지(水路誌)에 나타나는 해역명칭은 그 정착 과정이 우리나라의 개화 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1907년 발행된 조선수로지에 나타난 해역 명칭과 비교해보면, 1920년 발행된 수로지에서도 보다 많은 해역 명칭을 볼 수 있다. 1910-1918년간의 한반도 지형도 제작시에 도(島)와 서(嶼)가 많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영문 해역 명칭이 대체로 정착되었다.

1933년(昭和 8年) 1월 일본수로부에서 발행한 朝鮮沿岸水路誌 第1卷과 1934년 8월 발행된 朝鮮沿岸水路誌 第2卷에도 한반도 속의 소규모 해역명칭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이 1910년대에 이미 정착된 명칭임을 알려주고 있으며, 1920년 발행된 수로지 속의 한반도 해역명칭과 거의 같다.

1952년 1월 대한민국 해군본부 수로관실에서 발행한 韓國沿岸水路誌 第1卷과, 第2卷에도 한반도 속의 소규모 해역명칭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때부터 한국식 명칭으로 영문표기가 되기 시작하였다. 1952년 발행된 한국연안수로지는 우리말로 발행된 최초의 수로지(水路誌)이면서 전쟁 중에 발간된 책으로, 1933-34년 발행된 수로지와 비교하면 약간의 변화가 있을 뿐이고, 내용은 거의 같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고유의 지형명칭은 포, 말, 곶 등이 1500년대부터 사용되었으나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형명칭은 일본이 사용해 오던 것을 일본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도 같이 사용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2 해양지명의 표준화

2.2.1 해양지명 표준화의 목적

지명의 표준화는 교육, 미디어, 운송, 여행, 환경, 과학, 기술분야 등에서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지명의 표준화란 지명을 통일(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하는 과정으로서 특정의 지리적 장소, 특색, 지역에 대하여 각각 공식적인 이름을 부여하여 표기하는 것이다.

해양지명 표준화는 각 개별국가들이 해도 및 해양간행물에서 통일된 해양지명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항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며 해양측량기술이 발달하면서 해저지형에 대한 측량과 지명부여가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해양관련 간행물을 발간함에 있어서 단일화

해양지명의 표준화와 표준편람 제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tandardization and Manual Production of Marine eographical Names in Korea

임영태¹⁾ · 최윤수²⁾ · 장학봉³⁾ · 한길수⁴⁾

Lim, Young · Tae Choi, Yun Soo · Chang, Hak Bong · Han, Kil Soo

- 1) 국립해양조사원 해도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과정(E-mail : ytlim@nori.go.kr)
- 2) 서울시립대학교 지적정보학과 교수 (E-mail : choiys@uos.ac.kr)
- 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환경안전연구실 연구위원 경영학박사(E-mail : hbchang@kmi.re.kr)
- 4) 국립해양조사원 해도과장 (E-mail : kshan@nori.go.kr)

요지(Abstract)

해양지명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해양·해협·만·포 및 수로 등의 이름과 초·퇴·해저협곡 해구 등 해저지형의 이름이다. 지명의 표준화란 지명을 통일(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하는 과정으로서 특정의 지리적 장소, 특색, 지역에 대하여 각각 공식적인 이름을 부여하여 표기하는 것이다. 해양지명 표준화는 각 개별국가들이 해도 및 해양간행물에서 통일된 해양지명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항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며 해양측량기술이 발달하면서 해저지형에 대한 측량과 지명부여가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국내적으로 통일되고 국제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정확한 해양지명 부여를 위한 해양지명표준편람의 제작 목적과 방향에 관하여 연구하고 앞으로 해양지명위원회의 활동방향을 제시하였다.

1. 서 론

지명(地名)이란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언어유산으로 지명에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설, 문화, 풍속 등이 들어 있으며 그 지방의 생활상이나 자연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명이라는 말은 <한서(중국 전한의 역사책)> 지리지 머리말에 나오는 말이라고 한다. 원래 지명이란 산, 강, 바다 등 지구상의 자연물을 지칭하는 이름이다. 따라서 지명은 오로지 하나로 표현되거나 기록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어떤 장소는 동일한 언어나 서로 다른 언어상 한 개 이상의 지명을 지니기도 한다. 동일한 지명이라도 여러 방식으로 표기되거나 발음될 수도 있으며, 때로는 서로 다른 장소들이 동일한 이름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혼란은 의사소통의 장애를 초래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때로는 예기치 못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접해 있고 3,170여 개의 크고 작은 섬과 서, 여 외에도 수많은 암초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일부의 섬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표준화된 해양지명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해양지명표준화란 해양지명의 표기, 발음, 지명부여원칙에 있어서 혼란을 제거하고 통일을 기하자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해양지명표준화는 국내적으로 국민의 교육적, 학술적,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며, 국제적으로는 우리나라 해역에 위치하는 해양지명을 널리 알림으로써 해양주권의 확립과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지리적인 명칭에 대한 각계각층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세한 지도와 해도, 그리고 해양관련 간행물을 작성함에 있어서 단일화된 해양지명의 부여는 필수

적이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양지명표준화와 편람제정에 관하여 편람의 제정 목적과 제정방향 앞으로 표준해양지명의 구체적인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해양지명의 시대별 변화

우리나라 육상 및 해양 지명(地名)은 대부분이 1481년 완성된 동국여지승람을 통하여 처음으로 정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531년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은 1481년 완성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내용이 대부분이고, 그 후 1530년까지 보충한 것은 신증(新增)이라는 표시를 해서 구분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이 1530년 완성되고 1531년 목판 인쇄되었으나 우리나라 육상 및 해양 지명은 대부분이 1481년 완성된 부분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주변의 바다와 해안의 명칭이 서구화된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서양인들이 우리 해역에 직접 와서 해도를 제작하면서부터이다. 프랑스의 탐험항해가 La Perouse 일행은 1787년 우리나라 근해를 과학적으로 탐사하고 1797년 그들의 항해기록과 항해도첩(Atlas du Voyage de la Perouse)이 Paris에서 발행되었다. 항해도첩 속에 있는 3장의 해도에 나타난 바다 명칭이 포함되어 있다.

1886년(明治 19年) 12월 일본 해군수로부에서 발행한 환영수로지 제2권의 제2판 즉 개정판에 한반도 속의 소규모 해역명칭이 한문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들이 1880년대 초기에 이미 정착된 명칭임을 말해주고 있다. 수로지(水路誌)에 나타나는 해역명칭은 그 정착 과정이 우리나라의 개화 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1907년 발행된 조선수로지에 나타난 해역 명칭과 비교해보면, 1920년 발행된 수로지에서 보다 많은 해역 명칭을 볼 수 있다. 1910-1918년간의 한반도 지형도 제작시에 도(島)와 서(嶼)가 많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영문 해역 명칭이 대체로 정착되었다.

1933년(昭和 8年) 1월 일본수로부에서 발행한 朝鮮沿岸水路誌 第1卷과 1934년 8월 발행된 朝鮮沿岸水路誌 第2卷에도 한반도 속의 소규모 해역명칭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이 1910년대에 이미 정착된 명칭임을 알려주고 있으며, 1920년 발행된 수로지 속의 한반도 해역명칭과 거의 같다.

1952년 1월 대한민국 해군본부 수로관실에서 발행한 韓國沿岸水路誌 第1卷과, 第2卷에도 한반도 속의 소규모 해역명칭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때부터 한국식 명칭으로 영문표기가 되기 시작하였다. 1952년 발행된 한국연안수로지는 우리말로 발행된 최초의 수로지(水路誌)이면서 전쟁 중에 발간된 책으로, 1933-34년 발행된 수로지와 비교하면 약간의 변화가 있을 뿐이고, 내용은 거의 같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고유의 지형명칭은 포, 말, 꽃 등이 1500년대부터 사용되었으나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형명칭은 일본이 사용해 오던 것을 일본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도 같이 사용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2 해양지명의 표준화

2.2.1 해양지명 표준화의 목적

지명의 표준화는 교육, 미디어, 운송, 여행, 환경, 과학, 기술분야 등에서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지명의 표준화란 지명을 통일(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하는 과정으로서 특정의 지리적 장소, 특색, 지역에 대하여 각각 공식적인 이름을 부여하여 표기하는 것이다.

해양지명 표준화는 각 개별국가들이 해도 및 해양간행물에서 통일된 해양지명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항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며 해양측량기술이 발달하면서 해저지형에 대한 측량과 지명부여가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해양관련 간행물을 발간함에 있어서 단일화

된 해양지명의 부여는 필수적인 것이다.

2.2.2 해양지명 표준화의 원칙

(1) 이미 지명이 부여된 경우

해양지명 부여를 위한 구체적인 원칙은 지리지명 부여원칙과 다를 바 없다고 본다. 특히 해양지명 중 해저탐사를 통하여 지명이 부여되는 경우를 제외한 해양지형의 경우 대부분이 이미 지명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명부여는 기존에 부여된 지명의 권위를 인정하는 작업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기존지명이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인정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의 지명이 여러 개의 다른 지명으로 불려 지고 있는 경우, 혐오지명인 경우, 부여 근거가 부적절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또는 지방방언으로 표준화 단계에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관련기관에서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그 지명의 변경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하나의 지형에 여러 개의 지명이 존재하는 경우 이 중 가장 빈번히 사용되고 지역주민들과 해당 관계기관에서 선호하는 지명을 인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혐오지명이 사용됨으로써 해당 지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게 되는 경우 새로 개명하는 것이 좋다. 다만 이 때 지역주민들과 관계기관의 요청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부여근거가 부적절하거나 부정확한 경우는 주로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문제가 가려질 수 있는 경우이다. 만약 이미 붙여진 지명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신청이 없다면 그 지명은 그대로 인정될 것이다. 지방방언이 사용될 경우 대부분 그 지역의 특색을 존중하고 오래전부터 사용된 지명에 대한 최소한의 변경을 위해서도 지방방언 지명을 인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지명이 발음하기 어렵거나 쓰기 어려운 경우 좀더 쉬운 지명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약칭의 이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길고 발음이 어렵거나 쓰기가 어려운 지명은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아직 지명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아직 지명이 부여되지 않은 해양지형은 대부분 바다 밑에 있는 해저지형이다. 우리나라는 이들 해저지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공식화하는 작업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다. 수로도서지에 표기된 해양지명의 경우 대부분 관습적으로 사용되던 것을 그대로 채택하고 있을 뿐이다.

해저지형의 경우 대개 그 지형의 모양을 따서 이름을 짓는다. 또는 발견자 또는 발견 선박의 이름을 사용하기도 한다.

외국의 경우 인명이나 지명 또는 선박명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약칭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로마자 언어로 표기했을 때 읽거나 쓰기가 어렵거나 너무 긴 지명을 사용하는 것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해양지명 표준화 방안

3.1 용어 해설

해양지명표준화에 앞서 세계적으로 또는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명에 관한 전문용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내용은 제1회 유엔지명표준화회의에서 유엔지명위원회(UNGEGN)가 작성한 '지명용어일람표'에 준거한 내용이다.

<표 1> 지명용어 일람표

용어	해설
Geographical name(지명)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지고 있고 개개의 지리적 실재물을 호칭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고유 명사
Toponym	자연지형의 명칭
Place name	사람이 살고 있는 장소의 명칭
Feature name	자연지형의 명칭
Geographic entity	지명을 가지는 어떤 물체 또는 장소를 지칭하는 포괄적 표현
Natural feature (Physical feature)	지명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자연적 실재물
Hydrographic feature	수역(水域)의 지형(육상의 수류도 포함)
Cultural feature	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진 도로, 철도, 교량 같은 인공물
Generic term (속성용어, 속성지명)	지명에 포함된 것으로서 명명된 실재물의 형태를 나타내고 그 지역의 현행용법에서도 같은 의미를 가지는 용어
Specific term (특정용어, 특정지명)	개개의 실재물을 확정하는 지명요소
Dialect (방언)	용어의 지방적인 형태
Patois(사투리)	표준어와 다른 형태, 방언보다 폭이 좁다
Alternate term(별명)	동일물에 둘 이상 있는 이름중의 하나
Writing system(표기방식)	계통적인 표기법
Gazetteer(지명집)	지명의 편집물, 통일기관에 의하여 발행되는 지명의 편집물
Geographical dictionary (지명사전)	지명집에 게재된 자료 및 보완자료의 확인과 위치를 명확히 하는 지명의 편집물
Glossary(용어해설)	지명중의 속성용어와 그 의미를 모은 것

3.2 해양지명의 분류

해양지명은 크게 해상지명과 해저지명으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다.

1) 해상지명(sea surface names)

해상지명은 해면위의 지형에 관련된 지형의 명칭으로서 해양, 해협, 만, 포, 수로 등이 해당된다.

2) 해저 지명(undersea features names)

해저지명은 해면 아래의 지형에 대한 지명으로서 초, 퇴, 협곡, 분지, 해산 등이다. IHO(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에 등록된 지형의 명칭(generic terms)은 약 53개이고 IHO에 등록된 표준화된 지명은 2003년 10월 현재 3,268 개이다.

4. 해상지명(Sea Surface Names)의 표준화 방안

해상지명에 포함될 수 있는 지형명칭은 IHO가 1994년 발간한 수로용어사전(Hydrography Dictionary)을 근간으로 하고 그 외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편수용어, 대백과사전,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 등을 참고로 하고, 유엔해양법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등도 참고하였다.

4.1 해상지명의 범위

해상지명의 범위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관점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수로업무법에서 "해양지명(海洋地名)"이라 함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해양, 해협, 만(灣), 포(浦) 및 수로 등의 이름과 초(礁), 퇴(堆), 해저협곡, 해저분지, 해저산, 해저산맥, 해령(海嶺) 및 해구(海溝) 등의 해저지형의 이름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에서 나타나고 있는 해상지명 또는 해저지명은 그 '예시'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해상지명의 범주를 구분하여 보면, 바다(수면)에 관한 지형, 수로에 관한 지형, 암과 초에 관한 지형, 바다가 육지쪽으로 만입된 지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4.2 바다(수면)에 관한 지명

바다의 지명에 관한 명칭은 대양, 해양, 바다, 해 등이 사용되고 있다.

4.3 수로에 관한 지형

수로에 관한 지형에서 strait는 '해협(海峽)'으로 channel은 '수도(水道)'로 표기하도록 한다. 그 외 passage, gut, narrow, sound 는 적당한 우리말 표기가 없으며 우리말 표기가 필요한 경우 '수도'로 표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해협에는 건내랑해협, 대한해협, 사랑해협, 창선해협(이상 남해안)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수도로는 가덕수도, 거금수도, 육지수도 등이 사용되고 있다.

4.4 도서 및 암(바위)에 관한 지형

도서(島嶼)는 도와 서를 합쳐서 통칭할 때 쓰는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도(島)는 어떤 이름 밑에 붙어서 '섬(island)을 뜻한다. 섬(도, island)은 주위가 바다나 호소(湖沼)의 물에 둘러싸여 있는 육지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도(섬)은 육상지명에 속한다.

서(嶼, islet)는 도(섬)보다 작은 지형이며, 여나 암(바위, 岩)보다는 큰 지형이라고 할 수 있으나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여는 표준화과정에서 기존의 '여'는 그대로 인정하며 향후에는 '암'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여'의 영문 표기는 'rock'으로 한다.

이외에 바위를 나타내는 지형 명칭으로 '탄(灘)'이 있으나, '여'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탄의 예로는 과부탄, 광포탄, 난도탄 등이 있다.

암(岩, rock)은 일반적으로 정의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Hydrographic Dictionary에서는 '자연적으로 생성된 물질 형태로 지각(암석권)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며 단단하고 딱딱한 해저의 고체 덩어리로 자연적으로 생성된 물질'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항해에 위험하며, 해저로부터 비교적 뾰족하게 솟아 급격한 사면을 이루는 간출 또는 노출되는 바위'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암의 정의에는 '항해에 위험하며', '수중에 노출되기도 하는 바위'라는 의미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암은 형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로 구분되는데 국내에서 사용되는 지형명칭이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지형명칭보다 더 많다. 그러나 지형을 통일화하는 관점에서는 너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5 초(礁, reef)에 관한 지형

초는 일반적으로 해변 또는 해면 가까이에 불룩하게 솟아 있는 바위 또는 산호초로서 항해에

장애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으로 보면 초와 암의 개념이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암과 초를 합하여 암초(岩礁)라고 부르는데, 굳이 구분한다면 해저에서 암반이 수면상으로 솟은 것을 암(岩)(rock)이라 하고, 물속에 잠겨있는 바위(reef)를 초(礁)라 한다.

4.6 꽃 등 해양쪽으로 돌출된 연안지형은 해양지형에 속하지 않음.

우리나라에는 꽃(串) 등 해양쪽으로 돌출된 연안지형이 많으나 이들은 해상지형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는 갑(岬), 머리, 두(頭), 각(角), 단(端), 끝, 말 등이 있다. 영어로는 cape, point, head가 여기에 해당된다.

5. 해저지명(Undersea Features Names)의 표준화 방안

5.1 해저지명의 실태

해저지명의 속성지명은 IHO-IOC(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의 ‘Standardization of Undersea Feature names’에 수록되어 있다. IHO에 등록된 해저지명의 수는 3,268개이며 매년 증가되고 있다. IHO에 등록된 3,268개 중 우리나라에 관한 것은 1건(KOREA PLATEAU) 뿐이다.

5.2 해저지명의 범위

해저지명의 범위는 해상지명의 범위에 비하여 정립하기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해저지형의 표준화에 대해 IHO의 활동이 한창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그 결과 IHO/IOC 공동으로 ‘해저지형의 표준화(Standardization of Undersea Features)’에 대한 지침(Guideline)이 발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발간물(B-6)에는 해저지형의 지형명칭(Terminology)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다른 외국들도 이 지침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준용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방법일 것이다.

5.3 해저지형의 명칭 및 정의에 대한 표준화

상기의 지침에는 용어와 정의가 정리되어 있다.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우리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해저지명의 표준화가 우선적으로 국내표준화부터 먼저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영문으로 된 용어를 우리말로 정리할 필요가 있고, 또 어떤 지형의 경우, 우리말 보다 영문으로의 명칭이 많은 것도 있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6. 우리나라 해양지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1 해양지명 범위의 문제

일반적으로 지명은 크게 육상지명과 해양지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보면 유엔지명 표준화회의 등을 통하여 유엔이 지명표준화를 주도하고 있지만, 해양지명은 실제적으로 국제수로 기구(IHO)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해양지명의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수로업무법 제2조에서 ‘해양지명’의 정의가 언급되어 있지만, 예시 규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해양지명의 범위 확정은 표준화작업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2 용어와 활용상의 문제

우리나라의 해양지명을 보면, 지형명칭도 순수한 우리말보다는 한자어가 많다. 한자어가 일찍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 의해 일본식 지형명칭이 많이 붙여졌기 때문이다. 특히 해저지명의 경우, 대부분 영어 명칭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사용한 한자식 명칭을 원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약 1,000여개의 해양관련 지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해저지명에 해당되는 것은 매우 적다. 해양지명의 정확한 실태는 해양지명의 범위를 확정된 후 파악될 수 있겠지만, 해저지명의 수는 매우 적다. 공식적인 해양지명은 2002년 해양지명위원회에서 신규로 결정한 왕돌초 등 4개뿐이다. 우리나라 주변에도 해저분지(basin) 등이 발견되고 있으나 아직 국내적으로도 이에 대한 이름을 공식적으로 붙인 적이 없다.

6.3 미비한 관련제도

우리나라의 해양지명은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오는 지명을 해도(海圖)에 표기 사용하고 있으나 대부분 범위와 출처가 불명확하지 않다. 이는 해양지명의 제정·변경 및 고시와 관련된 국가차원의 제도가 그 동안 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식화·표준화된 지명이 없어 관련기관, 연구기관, 관련학계 등에서 제각각 사용함에 따라 혼란이 초래되기도 하였으며, 통일성이 없어 우리나라의 해양지명을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다행히 수로업무법에 근거하여 2002년 해양지명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6.4 해양지명 관련조직 및 인력

2002년에 해양지명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해양지명에 대한 공식적인 기구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고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구로 역할을 하게 되었으나, 해양지명위원회의 위상은 아직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해양지명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지 않고, 국립해양조사원의 해도과 직원 2명이 해양지명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를 맡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양지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의 확보와 이들의 전문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해양지명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6.5 국제 활동

해양지명위원회는 특성상 국제적인 활동이 특히 필요한 분야이다. 해양지명표준화가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며, 해양지명표준화의 성과물의 하나라 할 수 있는 해도제작도 국제적인 차원에서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사회에 대한 정보가 어두우며, 우리나라에 중요한 문제도 적시에 대응하지 못해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동해표기 문제만 하더라도 <LIMITS OF OCEANS AND SEAS> 가 처음 제작된 시기는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제3판이 발간된 1953년이라도 대처하였더라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더 수월하였을지 모른다.

7. 결 론

해양지명 편람은 수로업무법에 의하여 설치된 해양지명위원회의 발간물로서 해양지명의 국내 및 국제표준화와 관련된 업무 지침서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해양지명위원회가 새로운 지명을 부여하거나, 기존의 지명을 변경할 때 또는 새로운 해저지형을 발견하여 그 지형에 이름을 부여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기준과 원칙이 되며, 각 교육현장에서 교육용 교재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표준화된 국내해양지명과 관련하여 이를 국제기구에 소개하고 등록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우리 해양지명을 일관되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해양지명의 현황과 해양지명표준 편람에 관하여 고찰하였으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해양지명 표준화를 위하여 해양지명위원회의 활동 및 표준해양지명 편람의 활용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국내 해양지명 표준화작업이다. 이미 IHO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국제적으로 해양지명이 표준화되기 위해서는 국내 해양지명표준화가 기본 전제조건이다. .

둘째, 국제기구에 대한 해양지명 등록 작업이다. 국내적으로 표준화된 해양지명은 국내적인 항행용, 학술용, 또는 교육용 자료로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주권 행사의 상징적 기초로서 국제적 공인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해양지명위원회가 만들어진 궁극적인 목표 중의 하나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해양지명에 관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못한 것은 해양지명에 대한 전문기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해양지명위원회는 이 편람의 제정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해양지명이 잘 정비되고 나아가 우리 바다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국가관할해역에 대한 해양지명표준화 작업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연안항로지, 동해안 2003. 1, 남해안 2003. 1, 서해안 2000. 12. 국립해양조사원.
2. 국립해양조사원 해도, 동해안(75종), 남해안(58종), 서해안(59종). 국립해양조사원.
3. 국립해양조사원 home page 우리역사와 함께 숨쉬는 동해, 국립해양조사원,
4. 수로업무법 중 개정법률 설명자료, 국립해양조사원, 2001.
5. 해양수산업용어사전, 해양수산부 1999.
6. 해양지명위원회 운영계획, 국립해양조사원, 2002. 7.
7. 新訂 海圖の 知識, 日本 成山堂書店 平成 6년 (1994).
8. IHO, Hydrographic Dictionary, Monaco 1994.
9. 해양 지명의 전문성과 현황, 4개 학회 공동학술대회 2003. 4
10. 해양 지명의 특수성성과 표준화에 관한 연구,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 2003. 9
11. 해양지명 표준화 방안연구, 국립해양조사원. 2003. 12.